

Yeosu Web Contents

2024년 05월 03일 13시 18분



목차

목차	2
여수한뉴스 - 전체	3
2024 세계 기후도시 포럼, 여수에서 열려	3

2024 세계 기후도시 포럼, 여수에서 열려

2024.03.20 조회수 274 담당부서 기후생태과 담당자 홍예랑 연락처 061-659-5339

20~21일까지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주제…남해안 남중권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홍보 힘 실려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이클레이)가 주관하는 ‘2024 세계 기후도시 포럼’이 20일 여수 베네치아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막이 올랐다.

이번 행사는 오는 21일까지 ‘에너지 전환 및 자연기반 해법 활용’이라는 주제로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도시전략과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독일,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6개국 10여 명의 국외 초청 연사와 각국의 이클레이 회원 및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GCoM) 참여 지방정부, (사)탄소중립실천연대, 연구기관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 전환(태양광, 해상풍력)에 대한 각국의 사례 공유 ▲자연기반해법 관련 도시 사례 발표 ▲참가자 워크숍을 통한 에너지 전환 및 자연기반해법 관련 그룹 논의와 정책 아이디어 도출 등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해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여수시와 이클레이 간 국제행사 협력 논의로 이끌어 낸 결과물로, 시는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홍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와 전남도는 본 행사에 앞서 남해안 남중권 전라남도, 경상남도과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담당자 협력 회의를 열고 COP33 남해안 남중권 공동유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며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성공유치 의지를 다졌다.

이날 김종기 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에너지 전환과 자연기반 해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해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그린카본을 넘어 블루카본이 기후변화 극복 방안임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yeosu.go.kr>)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1-1 2024 세계 기후도시 포럼, 여수에서 열려.jpg (47 hit / 295.3 KB)

[미리보기](#)

1-2 2024 세계 기후도시 포럼, 여수에서 열려.jpg (45 hit / 420.4 KB)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여수시립도서관, 시민 책 쓰기 '어쩌다 작가' 운영

다음글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미래 중장기 로드맵 마련 '첫..'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Yeosu Web Contents



여수시